

음식과 수행

영생의 기초 음식

“삼시 세 때 마늘, 양파, 김치를 꼭 잡주세요”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 영생의 비결만 설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 율법을 실천하셨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며 당신의 영적 자식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구세주의 사랑은 심지어 영적 자식들의 먹거리에까지 이르러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을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인용하시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옛날부터 오래오래 사는 것을 동경했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음식도 ‘건강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민족이 영생할 민족”이라고 강조하셨다.

구세주께서는 김치의 항생효과를 매우 강조하셨는데 2001년 전 세계에 유행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사스(SARS)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김치를 주 음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김치가 각광을 받았고, 일본은 김치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김치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구세주께서 가장 강조하신 먹거리는 마늘이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말씀하시면서 파도 항암효과가 매우 높다고 하셨다. 이처럼 구세주께서는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음식들을 언급하셨으나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뒤에 이를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전에 TV KBS1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파의 성분 중 하나인 퀘르세틴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을 갖고 있으며 이밖에 도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양파는 혈액 속의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주며, 혈액의 점도를 낮춰 깨끗

한 혈액을 만들어서 혈액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고 한다. 양파는 정상적인 혈당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높은 혈당에만 작용하여 정상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작용을 멈춘다고 하며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마늘 속 알리신의 역할

그리고 건강 음식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마늘인데 냄새를 제외하고는 무려 100가지 이로운 효과가 있어 일해백리(一齊百利)라고 할 정도로 그 효과도 엄청나다.

마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강력한 살균 및 항균작용인데 마늘 속 에 있는 알리신이 페니실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보다도 더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복숭아나 외용으로 사용된다.

이 알리신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덕분에 혈관을 확장시켜 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 또한 위의 점막을 자극하고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알리신은 간장 속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성이 강한 물질로부터 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며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뇨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구나 양파나 마늘은 고가의 음식도 아니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 몸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구세주께서 설하셨고 또 매스컴에서조차도 강조하고 있는 이 영생의 기호음식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깨니때마다 조금씩 드셔서 앞으로 다가올 영생의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9회>

구세주가 생명의 진액을 부어주니까 현재 사람이 생존할 수 있어

-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렇게 구세주께서는 태양 빛도 소멸되고 또한 별빛도 소멸되고,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곡선광선에 의해 온 우주가 밤이 없는 광명한 천천신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밤이 없으니까 피곤한 것이 없고 피곤한 것이 없으니 잠자지 않는 세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중성광으로 쾌감을 주는 빛이므로 그 빛을 받는 자는 웃음과 즐거움이 떠날 날이 없고, 병에 걸리려야 걸릴 수 없고, 늙으려야 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이란 고통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늙음도 고통이 있어야 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슴이나 어떤 일에 실패하여 낙망할 때 시 험내라고 북돋아 주는 말로 쓰여 왔으나, 사실이 말씀에는 하늘의 기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땅골 땅 모퉁이 한반도에서 출현한 동방의 의인,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꼬불꼬불한 곡선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으로 지그재그로 된 쥐구멍도 환하게 비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맡긴 상태로 시종일관 변치 않고 끝까지 긴 시간도 필요 없이 딱 1년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되게 되어 있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면 되겠느냐고 어르고 종용하시는 겁니다. 1년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17세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구세주를 공항에서 환송하는 성도들

근대 구세주 되는 사람은 어찌하여 17세로 안 변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일 만민들의 죄를 들쳐 씌워 짊어지고 곤두박질치는데 17세로 변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감당만 하지 않으면 1시간 만에 17세로 변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죄를 담당하고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만민들이 살고 현존할 수 있지, 만약 1시간만이라도 그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쓰러져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타난 시간부터는 구세주 때문에 세계 만민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가 구세주의 분신이고 구세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구세주가 나오면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자마귀를 구세주의 분신이 바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가 마귀 종이라고 했으니 마귀 종이 마귀새끼요 마귀새끼가 마귀인고로 죄가 곧 마귀입니다. 구세주가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마귀를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람이 생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구세주의 분신이 쉬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자마귀를 죽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오늘날 인간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기력이 없는 노인네들도 버티고 살고 있는 것은, 구세주가 생명의 진액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진액을 끊어버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

하고 하십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귀엽게 생각하시는 구세주는 우리들과 일촌도 아닌 영촌이라고 합니다. 부부지간은 영촌이요 자식은 일촌이라고 하는데, 구세주와 사람이 부부지간의 영촌이기에 한 몸이요 그래서 구세주의 분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가 바로 구세주의 분신이고, 구세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땅 위에 공기를 말릴 목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공기가 왜 맑혀지냐 하면 공기 속의 마귀를 전부 죽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마귀를 죽이는 까닭에 구세주는 다른 사람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피로하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여, 한 이삼일을 쉬어야 피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이삼일 지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밤에 편안히 잠들지만, 구세주는 잠잠을 자지 못하고 방안에 점령하고 있는 마귀와 육박전을 벌이며 기도로 소탕하여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세주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코자 죄를 담당하면서 피를 토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구세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희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자유율법을 지키면서 죄와 상관없는 일초 일초를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영모님이 둘째 아담의 손을

붙잡고 한 시간 동안 목을 놓고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계신 영모님을 면회하러 올 때마다 육군 중위라는 사람의 두 손을 붙잡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우셨는데, 이 영모님이 둘째 아담의 앞날을 내다보니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생하고 고통당할 걸 생각을 하니 너무나 부실하고 애처로운고로 그냥 목을 놓고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고 지옥에 던져도 좋으니 당신 뜻만 이루어줍소서!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을 때에는 이 세상 만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죄인 중에서도 고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최고의 고수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버려도 좋으니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고 지옥에 던져도 좋으니 당신 뜻만 이루어줍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 구원을 얻자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며불며 애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긴자가 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나도 구원을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기도는 하나님께 불효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온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맡김으로써 둘째 아담은 태초 이래 처음으로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권한을 둘째 아담에게 주셨고, 둘째 아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마지막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심으로 해서 그의 마음 속에 천국 하나가 건설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000년 전에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56> - 최종회(最終回)
新金剛經解說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 第三十二
응화분은 진실이 아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해석] 상(取着) 말고 그대로 (금강경을 새로이 해설해 주는 이) 공경(如如)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 금강경의 사구계 중 마지막 계승인데 석존의 법이 미완성의 벽지불과의 깨달음인 인연법을 깨달아 닦은 유위법이며, 이 유위법은 범부의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므로 허망한 것이라고 했고, 이 허망함이 곧 죄라고 하였습니다.
[예시] 대반열반경 제16권 범행품(梵行品)의 3
若言不知不見不覺 是爲虛妄
虛妄之法則爲是罪 以是罪故墮於地獄
허망지법즉위시죄 이시죄고터어지옥
만약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
지 못했다고 말하면 이것이 허망한 것이요, 허망의 법이라는 것이 곧 죄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해석] 이같이 열반경에서도 석존은 자신이 깨달은 유위법에 대해 석존 스스로 자신의 법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완전한 것인지 다음의 사구계에 직설하고 있습니다.
제4 사구계(第四 四句偈)
一切有爲法 一切無常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모든 (석존의) 유위법(有爲法)은 마치 꿈과 허깨비,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
[해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의 말씀은 모두 마쳤습니다. 가끔씩 경전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어려운 불교 단어는 불교사전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사전에서 그 내용이 석존의 뜻과 다른 부분은 경전에 근거해서 바른 뜻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금강경을 통하여 석존은 지금까지의 불교의
佛說是經已 佛說經已 佛說經已
長老須菩提及諸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장로수보리금제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一切世間天人阿修羅 閻佛所說 皆大歡喜
일체세간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개대환희
信受奉行 金剛般若波羅蜜經
신수보행 금강반야바라밀경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고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와 모든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모두 몹시 기뻐하면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믿고 가지며 받들어 행하더라.
[해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의 말씀은 모두 마쳤습니다. 가끔씩 경전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어려운 불교 단어는 불교사전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사전에서 그 내용이 석존의 뜻과 다른 부분은 경전에 근거해서 바른 뜻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금강경을 통하여 석존은 지금까지의 불교의
善男子 道有二種 一者常 二者無常
선남자 도유이종 일자상 이자무상
菩提之相亦有二種 一者常 二者無常
보제지상유이종 일자상 이자무상
涅槃亦爾 外道道者名爲無常 內道道者名爲常
열반역외 외도도자명위무상 내도도자명위상
覺緣覺所有菩提名爲無常
정緣覺所有菩提名爲無常
菩提者佛所有菩提名爲常
보제자불 소유보제명爲常
보살계보소유보제명위상
선남자여, 도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느니라. 첫째는 영원함이고, 둘째는 영원함이 없는 것이니 열반도 또한 이와 같다. 외도(外道)들의 도를 무상(無常)이라고 하는 것이며, 내도(內道=正道)의 바른 도를 영원함(常)이라고 하는 것이라. 성문과 연각이 가지고 있는 보리를 일러 무상(無常)하다고 하는 것이며, 보살